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연구

盧載明*

I. 서론	III. 1973년 판소리 감상회 개요
II.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분석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국악음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을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고, 여기 그 자료를 영인하여 처음 공개한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확인된 판소리 공연 방명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근현대 판소리 공연의 큰 획을 그었던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모태가 된 중요한 행사였는데 해당 감상회의 동영상, 녹음, 사진이 아직 발견된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명록은 지금까지 확인된 해당 행사의 유일한 기록 원본이다.

이 방명록에 친필이 있는 총 17명을 분석하면 1920~1923년에 출생한 참석자가 많고 학자, 교수, 서울대 출신, 독립운동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대 학과 교수들이 이 감상회를 선도했다고 판단된다. 일부 인사들은 연희전문, 연세대와 관련이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국어국문학회를 아우르며 공히 깊게 관련된 인물은 정병욱이고, 이 방명록의 인물들은 대부분 정병욱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그의 초대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계에서는 해당 판소리 감상회가 1973년 가을 기독교방송국 연주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본고에서 이 감상회의 방명록을 연구하고 성경린의 관련 기록을 찾아내 이 행사가 1973년 4월 4일 기독교방송국 소강당, 5월 12일 기독교방송국 대강당, 가을에 기독교방송국 연주실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밝혔고 공연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국악음반박물관 관장

명창 명단도 일부 처음 입증했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의 출연 명창이 박록주와 박봉술이므로 제1회와 제3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가 출연했으리라 보여지고 제2회 감상회의 사례로 견주어 보면 매회 명창 2명씩 공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와 해당 방명록의 특징은 서명한 참석자들의 면모로 봐서 이 공연이 판소리의 음악학뿐 아니라 국문학, 철학 등 인접 학문도 염두에 두고 개최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판소리와 관련된 여러 학문들과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정병욱과 친분이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감상회가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지 및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노력도 나타난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은 서명을 남긴 학자, 독립운동가, 정치인, 공무원 등의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방명록의 서명자들과 공연 출연자들의 인적 사항, 이 감상회 개최를 주도한 이들의 담당 내용을 분류 정리하여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이 방명록 등을 연구하여 해당 감상회가 이후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 1984년부터 시작된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시리즈 등 국립 기관과 민간 차원의 판소리 공연과 음반 기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을 통해 1973년 판소리 감상회가 역사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그간 관련 자료 부족으로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 거의 백지 상태로 잊혀진 주요 부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명창, 정병욱

I. 서론

국악은 한때 사회적인 인식과 인기가 낮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행사였는데도, 아주 오래전 사건이 아닌데도 극히 일부 편린만 기록이 남아 그 실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작은 단서라도 기록 자료가 부족한 국악계에선 중요하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가 바로 그러한 사례인데 그간 관련 실증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그 전모가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었다. 최근 그 감상회의 방명록이 발굴되어 그동안 학계에 잘못 알려졌거나 미궁에 빠져있던 그 행사의 면모와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를 개최한 주역, 출연한 명창·명고는 누구이며 어떤 노력을 했고 이 행사가 그 뒤 어떤 파급 효과를 발휘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 판소리의 공연과 전승 활성화, 대중화와 세계화, 인접 예술 및 관련 학문과의 연계 문제, 전통 판소리와 신작 판소리에 대한 고민, 판소리에 관한 총체적인 미래 기획·창작·연구·교육·제도·지원·홍보·모객 등의 전략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판소리 방명록이며, 본고는 이에 관한 첫 논문이다. 한국 문화예술 관련 방명록에 대한 논문 자체가 극히 드문 형편인데, 원본이 단 하나인데다 대부분 개인이 지니고 있어서 학자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방명록은 내용이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소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분석

1. 발굴 과정과 진위 규명

1) 발굴 경로와 현 상태

본고에서 다루는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원본은 국악음반박물관이 2022년

12월 21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서점에서 100만원에 구입하여 소장 중이다.¹⁾

크기는 가로 31.5cm, 세로 33cm이며 표지는 두꺼운 도화지, 내지는 한지로 되어 있다. 내지가 총 34면 분량인데 이 가운데 총 4면에 참석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0면에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내부 한지에 사인을 할 때 뒤로 번져 묻지 않도록 댔던 두꺼운 도화지(가로 45.5cm, 세로 31.5cm)가 별첨 내장되어 있다. 이 방명록의 전체 기록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앞표지: 一九七三.四.四 방명록
- 내지 1면: 第一回 감상회 一九七三.四.四. 기독교회관 소강당
鄭錫海 李惠求 李義喆 김석하 李能雨 강한영 이보형 정병욱 박초선
- 내지 3면: 張建祥 洪鍾壹 孫道心 鄭鍾洛²⁾ 愼榮己
- 내지 5면: 第二回 감상회 一九七三.五.一二. 기독교회관 대강당
金蓮洙 梁貞粉 李義喆
- 내지 7면: 權五惇 鄭炳昱
- ※ 2·4·6·8~34면은 기록이 없는 빈 지면.

제1회 방명록에 총 14명, 제2회 방명록에 총 5명이 서명하였다. 제3회 판소리 감상회도 개최되었으나 제3회 방명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방명록에 따르면 제1~2회 판소리 감상회에 모두 참석한 이는 정병욱과 이의철이다. 이의철은 심리학자이고, 제1~2회 방명록에 판소리 학자 정병욱이 모두 기록된 점, 제2회 방명록에서 판소리 학자 강한영과 이보형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봐서 이 시리즈 감상회는 정병욱이 주도하여 기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과 함께 1971년 서울대 민속가면극연구회 창립 봉산탈춤 공연 방명록이 발견되었는데, 1971년 서울대 봉산탈춤 공연 방명록과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에 유일하게 정병욱만 모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방명록들과 일괄로 발견된 1976~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사설집 책자 18권에 필기되어 있는 각종 메모들 필체가 정병욱의 글씨와 같다. 따라서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

1) 이는 2022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국악과 성기련 교수가 국악음반박물관에 기부한 후원금으로 구매한 것이다.

2) 혹은 鄭鍾沄이나 鄭鍾沄.

록을 비롯한 이 자료들은 정병욱이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방출되어 도서관까지 흘러나왔다고 판단되며, 다행히 국악음반박물관이 매입하여 소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 원본들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편이다.

2) 필적 대조와 진위 검증

해당 방명록에는 ‘第一回 감상회 一九七三.四.四. 기독교회관 소강당, 第二回 감상회 一九七三.五.一二. 기독교회관 대강당’이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감상회인지, 출연자와 주최자는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방명록에 기록된 1973년 감상회는 어떤 공연이었는지, 이 방명록은 당시 기록된 진본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해보았다.

제1회 감상회 방명록에 강한영, 이보형, 정병욱, 박초선이 나란히 서명한 점으로 봐서 이들이 판소리 전문가들이므로 판소리 공연 기록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해당 방명록의 신빙성과 역사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질 수 있기에 혹시 다른 매체에 그 감상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추적하였다. 우선 정병욱이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 대해 남긴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보았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판소리학회가 판소리 감상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1973년 가을이었습니다. 기독교방송국 연주실을 빌어 감상회를 한달에 한번씩 세번 열다가,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한창기 대표이사의 쾌락을 얻어서 이듬해 정월부터는 판소리학회와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의 공동 주최로 엮으로써, 이 판소리 감상회를 제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³⁾

정병욱의 이 회고 글이 손태도의 「판소리의 예술성에 대한 확신 속에 이뤄진 100회의 판소리 행사」⁴⁾ 등에 인용 소개되어 알려지면서 정설로 굳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3) 정병욱,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판소리 다섯 마당』,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3면.

4)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기획·집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의 기록』(김여란·정권진·박동진·성우향·오정숙·박봉술·박초선·조상현 판소리 녹음 수록 CDPARK-18-092~093, 2CD, 녹음 제공:이보형), 국립중앙도서관, 2018, 13면.

정병욱의 회고 글에는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공연 시점이 가을로 적혀있어서 국악 음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73년 4월과 5월 감상회 방명록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1973년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신문을 찾아보았으나 ‘판소리 감상회’에 관한 기사나 해당 방명록과 관련된 공연 기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병욱이 회고 글에 적은 1973년 가을 판소리 감상회와 국악음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73년 봄 감상회 방명록은 서로 다른 공연인 것인지 혼란스럽고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그러다가 필자는 성경린의 「국악 자료-1973년도」라는 1973년 국악 행사 연표에서 “五月 12日 제2회 판소리 감상회, 연창자 박록주·박봉술(기독교방송국 대강당)”이라는 기록을 발견하였다.⁵⁾ 이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 관해 그 당시 기록된 유일한 출판물로서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감상회 방명록과 공연 시기, 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정병욱의 회고 글에 보이는 1973년 가을이라는 기록은 기억의 착오로 판단된다. 정병욱이 1982년에 발표한 이 회고 글은 그가 별세 직전에 집필한 것이라 건강상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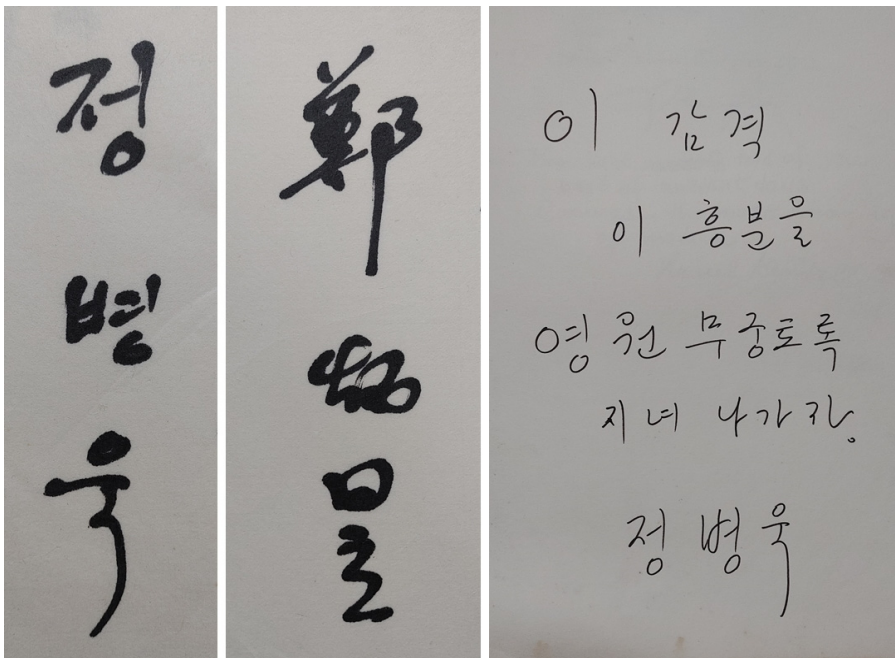
1973년 제1회와 제3회 판소리 감상회 소식은 성경린도 알지 못했는지 연표에서 누락했다. 이외에 당시 일간지와 다른 문헌들에서는 해당 판소리 감상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성경린이 기록한 1973년 국악 행사 연보만 봐서는 제2회 판소리 감상회가 어떤 성격의 판소리 공연이었는지 알기 어려운데 해당 방명록에 의해 상호 보완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감상회 방명록과 성경린이 정리 발표한 1973년 국악 행사 연표의 비교를 통해 해당 감상회 방명록의 기록이 사실임이 판명되었고 성경린의 해당 기록을 찾게 되어 방명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출연자 명단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판소리 감상회의 마지막 공연이었던 제3회는 언제 공연되었는지 상세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병욱의 회고 글에 나타난 1973년 가을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제3회 감상회는 1973년 9~11월 중에 개최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일 정병욱의 회고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감상회가 한달에 한번씩 세번 열린 게 맞다면 1973년 4월 4일에 제1회, 5월 12일에 제2회, 그리고 이어서 제3회는 6월에 개최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필자는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5) 성경린, 「국악 자료-1973년도」, 『한국예술지』 9, 대한민국예술원, 1974, 307면.

방명록을 분석하여 그간 학계에서 정설로 인식되어 온 ‘1973년 가을 판소리 감상회’라는 잘못된 기록을 본고에서 바로잡게 되었다.

이제 방명록에 있는 서명을 해당자의 다른 필적 기록과 대조하여 이 방명록의 진위를 더욱 확실히 증명코자 한다. 방명록의 서명과 동일인의 다른 기록물에 있는 필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필자가 확보한 것은 정병욱, 이해구, 이보형의 글씨이다. 우선 해당 판소리 감상회를 주최한 판소리학회의 핵심 인물 정병욱의 필체들을 찾아 다음과 같이 대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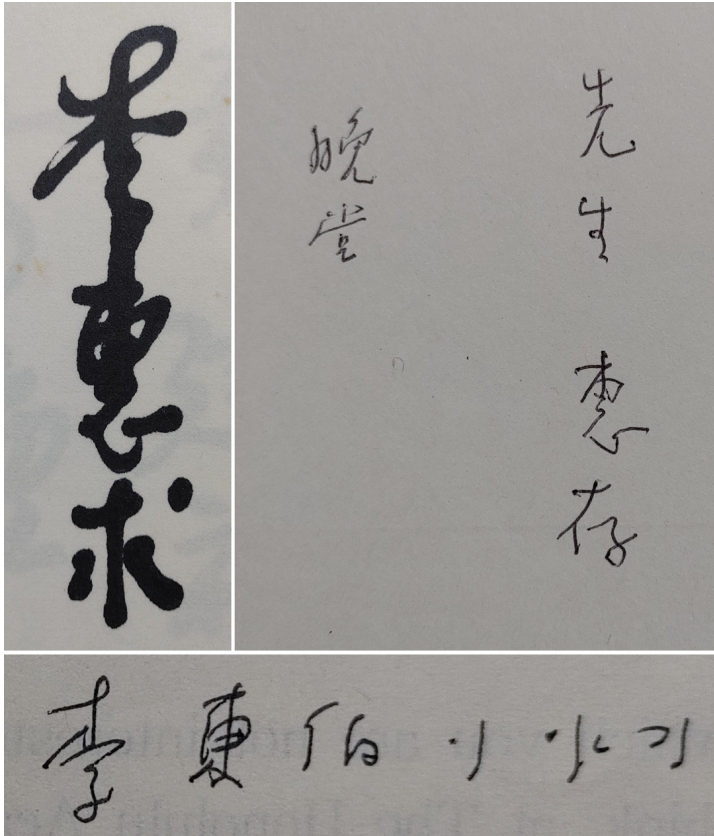


〈자료 1-1~3〉

정병욱 친필①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4월 4일 제1회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정병욱 친필②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5월 12일 제2회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정병욱 친필③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1년 9월 15일 서울대 민속가면극연구회 창립 봉산탈춤 공연 방명록

이는 비슷한 시기에 각기 한글 붓 글씨, 한자 붓 글씨, 한글 사인펜 글씨로 적은 것인데 비교해 보면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정병욱

한글, 한자 서명 모두 친필이 맞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이해구의 필체들을 찾아 대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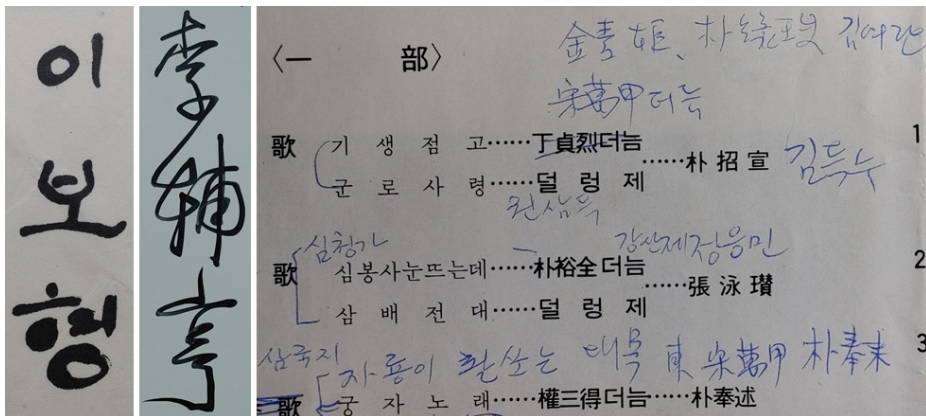


〈자료 2-1~3〉

- 이혜구 친필①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4월 4일 제1회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이혜구 친필②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이해구 저서 『보정 한국음악 연구』(민속원, 1996)의 2003년 2월 26일 저자 친필 서명
이혜구 친필③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2003년 2월 26일 이해구가 판소리 명창 이동백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적어 놓은 메모지 기록 일부

이는 1973년과 2003년에 각기 한자 붓 글씨, 펜 글씨로 적은 것인데 2003년 기록에는 이해구의 아호 만당(晩堂)으로 서명하였기에 이해구(李惠求) 한자 친필과 그가

적은 이동백 명창의 ‘李’, 혜존의 ‘惠’자를 대조해 보았다. 적은 시점이 30년 간격이 있는데도 필체가 서로 닮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보형의 필체들을 찾아 대조한 것이다.



〈자료 3-1~3〉

- 이보형 친필①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4월 4일 제1회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이보형 친필②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한국음반학』 2(한국고음반연구회, 1992)의 1992년 10월 17일
 친필 서명
 이보형 친필③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1년 7월 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판소리 유파 발표회’
 (명창 권삼득 탄생 200년 기념) 안내 인쇄물의 이보형 자필 기록 일부

이는 1973년, 1992년, 1971년에 각기 붓과 펜 글씨로 적은 것인데 이보형이 중간에 서예를 학습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1992년 한자 서명의 경우는 1970년대에 비해 다소 바뀐 상태이고 1973년과 1971년 한글 필체는 서로 닮았음을 알 수 있다.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에 서명을 남긴 이들 가운데 이보형은 현재 소재가 파악되는 사람으로 유일한 생존자인데 건강과 기억력이 좋지 못해 해당 방명록과 감상회에 대해 물어보지 못하고 그의 과거 필체들만 이렇게 비교해 보았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정병욱의 회고 글, 성경린의 1973년 국악 행사 연표 정리본을 종합 분석해 보면 해당 방명록은 진품이 맞다고 판단된다.

2. 내용 해제

1) 친필 기록자별 인적 사항 소개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에 친필을 남긴 이는 총 17명인데 그 인적 사항을 인명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강한영**(姜漢永):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13년 전라북도 완주 태생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판소리』 등의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숙명여대·일본 천리대 교수, 전주우석대 총장, 문화재위원, 국립창극단 단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 별세함.⁶⁾
- **권오돈**(權五惇): 제2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01년 경기도 여주 태생으로 중국 상해의 호강대학(滬江大學)에 유학하였고 1920년대 초 안동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다 1924년 상해로 망명하였음. 김구의 알선으로 무창의 서호서원에 관비생으로 입학하였으며 1927년 중앙군사정치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고 그 뒤 상해로 돌아가 항일비밀결사인 다물단(多勿團)에 입단, 다물단의 지령을 받아 군자금과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음. 1929년 충주에서 문예운동을 표방한 무정부주의 비밀결사인 문예운동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른 뒤 1934년 출옥함. 광복 후 한학자로서 연세대 동양학과 교수로 활동하였고 유도회(儒道會) 고문 등으로 활동하다 1984년 별세함.⁷⁾
- **김석하**(金錫夏):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23년 경상북도 영주 태생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학사~박사를 졸업하고 단국대 교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사,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⁸⁾ 『한국문학사』(신아사, 1988) 등의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별세함.⁹⁾

6) 강한영, 『판소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223면, 저자 약력; 「강한영 부고」, 『경향신문』, 2009.4.6.

7) 「전 연세대 교수 권오돈 씨」(부고), 『동아일보』, 1984.2.11; 「권오돈(權五惇)」,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1988; 신재홍, 「권오돈(權五惇)」,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995.

8)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회 삼십년사』, 일조각, 1983.

9) 「김석하 부고」, 『경향신문』, 2011.10.14.

- 김연수(金蓮洙): 제2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판소리 명창 김연수(金演洙)와 다른 이.
- 박초선(朴招宣):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31년 전라남도 화순 태생으로 전통춤 명인 박영구의 손녀이자 판소리 명창 박봉선(1910년 무렵 출생)의 여동생.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한 판소리 명창. 공대일·김억순·조상선·박록주·김여란·김소희(판소리), 임소향(무용), 김종기·성금연(가야금), 김일구(아쟁), 김월하(시조창) 문하에서 사사하였으며 2014년 별세함.¹⁰⁾
- 손도심(孫道心):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20년 경기도 화성 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치인. 1947년 전국학생연맹위원장으로서 신탁통치반대운동과 교내의 좌익세력제거운동을 주도하였고 1955년 단국대 강사를 하다가 그해 제3대 국회의원,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4.19의거 당시 현역의원으로서 서울신문사장으로 있다가 신문사가 불타는 등 수난을 겪었고 그해 5월 국회에서 제명됨. 장기학원(將棋學院)을 열고 골동품을 수집하고 고려 청기와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기도 하였고 『세계의 국기』, 『원수는 없다』, 『호랑이』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1979년 별세함.¹¹⁾
- 신영기(愼榮己):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 신영기(申永琦, 1921~1995, 인천 태생)와¹²⁾ 다른 이.
- 양정분(梁貞粉): 제2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 이능우(李能雨):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20년 충청남도 보령 태생으로 서울대 국문학과 학사·박사를 졸업하였으며 필명은 이채우. 소설가,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숙명여대 교수,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국문학 고전 분야), 동덕여학단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였고 『고시가 논고』(1966), 『고소설 연구』(1974), 『가사문학론』(1977) 등의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2006년 별세함.¹³⁾

10) 노재명, 「화순의 음악 문화와 예인-현지조사와 실증자료 중심 연구」, 『제11회 국립남도국악원 학술회의-남도 굿, 삼현육각과 예인을 만나다』, 국립남도국악원, 2014.6.28~29, 90~165면;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 원로 박초선 명창 별세」, 『판소리 명창 제5호-적벽가 명창, 활 쏘고 불 지르다』, 채륜, 2015, 297면.

11) 한국국회인물사편찬회, 「손도심(孫道心)」, 『역대국회의원총람』, 조세공론사, 1983.

12) 「정년 퇴임-토목공학과 신영기 교수」, 『서울대학교 공대 소식』 2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1986.3, 5면.

- **이보형**(李輔亨):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35년 전라북도 김제 태생의 국악학자. 국악예술학교 · 서울대 등 강사,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판소리 유파』(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¹⁴⁾
- **이의철**(李義喆): 제1~2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13년 충청남도 공주 태생으로 경성제국대 철학과, 서울대 철학과 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 중앙대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심리학), 심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함. 『심리학사』(1970)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995년 별세함.¹⁵⁾
- **이혜구**(李惠求):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09년 서울 태생의 국악학자. 경성제국대 영문학과 졸업, 서울대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며 국악 방송을 담당함. 서울대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창립,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활동을 하였고 『한국음악연구』(국민음악연구회, 1957)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별세함.¹⁶⁾
- **장건상**(張建祥):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문화재관리국 학예관,¹⁷⁾ 문화재 연구실 민속 담당,¹⁸⁾ 문화재관리국 문화 연구 담당관실,¹⁹⁾ 문공부 학예연구관으로²⁰⁾ 근무함.

13) 「학술원 회원 이능우 교수 별세」, 『한국일보』, 2006.8.29.

14) 노재명, 「움직이는 한국 음악 대사전 이보형 선생님」, 『제16회 방일영국악상 시상식-현정 이보형 수상 편』, 조선일보사, 2009년 11월 17일, 52~53쪽; 노재명 · 송방송 · 유영대 · 김현선 · 김인숙 · 성기련 · 김혜정 · 임혜정 · 이진원 · 전지영 · 성기숙, 『한국민속음악학의 개척자 이보형의 학문 세계』, 연낙재, 2019.

15) 「학술원 회원 이의철 박사」(부고), 『동아일보』, 1995.5.1.

16) 이상만, 「나의 스승-이혜구 선생님」, 『경향신문』, 1984.2.13; 「국악계 거목 이혜구옹 별세」, 『국민일보』, 2010.2.1.

17) 「토기는 신라 때 것」(서울세관 압수골동품 감정), 『조선일보』, 1966.3.19. “문화재관리국 학예관 장건상(張建祥) 씨”

18) 「문공부 인사」, 『매일경제』, 1969.12.22. “문화재연구실 민속 담당 근무 장건상(張建祥)”

19) 「인사」, 『조선일보』, 1973.3.30. “문화 연구 담당관실 장건상(張建祥)”

20) 「숨은 청백리 94명 수상」, 『동아일보』, 1976.6.9. “수상자: 근정훈장-장건상(張建祥), 문공부 학예연구관”

- **정병욱(鄭炳昱)**: 제1~2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922년 경상남도 남해 태생으로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문학과 학사~박사를 졸업하였고 부산대·연세대·서울대 교수, 하버드대 초빙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함. 판소리학회를 조직하고 판소리 감상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의 판소리』(집문당, 1981)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982년 별세함.²¹⁾
- **정석해(鄭錫海)**: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899년 평안북도 철산 태생의 항일운동가·철학자. 연희전문 YMCA회장으로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함. 1920년 상해로 망명하여 홍사단에 가입하였다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하였고 1939년 귀국하였다가 밀고로 체포되어 국내에서 연금생활을 함.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철학·수학·물리·불어 등을 가르쳤고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4.25교수단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숙명여대 이사장, 한불문화협회 초대이사장, 한국철학회장, 민족통일촉진회 최고위원으로 활동함. 『진리와 그 주변』(일조각, 1992)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1996년 미국에서 별세함.²²⁾
- **정종락(鄭鍾洛)**: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민족지도자들이 조선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1923년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방에 지방부가 설립되었는데, 1923년 7월 경상남도 거창에 민대 지방부가 설립되어 기금 모금과 민립 대학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자 여름 방학을 기해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강연대를 조직해 거창군의 14면을 순회 강연하였고 이때 강사가 정종락 등이었음.²³⁾
- **홍종일(洪鍾壹)**: 제1회 판소리 감상회 참석. 1896년 함경북도 경성 태생의 철학자·한학자·시인. 1919년 독립운동 연통제(聯通制)사건 50인 중 1인으로 고향 경성의 학교 설립과 모란강 농장 개척에 크게 공헌함. 아호는 금운(錦雲)이고 1946년 남하하여 6.25전쟁 때 부산 피난중 한시 공부를 본격

21)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1; 「정병욱 박사 별세」, 『매일경제』, 1982.10.13; 정병욱,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방법』, 신구문화사, 1997.

22) 「전 연세대 교수 정석해 씨」(부고), 『조선일보』, 1996.8.15; 「전 숙대 이사장 정석해 박사」(부고), 『동아일보』, 1996.8.15.

23) 장선화, 「거창 민대 지방부」, 『디지털거창문화대전』 해설 글(<http://geochang.grandculture.net/geochang/toc/GC06300157>).

시작하였고 그 뒤 서울 신당동에서 거주하고 독점에 농장을 마련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 별세함. 그의 한시들이 사후 며느리 최분금에 의해 『금운 한시집』(해석:김택춘, 2006)으로 200부 한정 출판됨.²⁴⁾ 이 『금운 한시집』 26쪽에 판소리 관련 홍종일의 한시 <심청>(沈淸)이 실려있음.

이는 연령, 인맥, 학연, 전문 분야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름에 맞는 사람을 찾아 대입하여 정리한 것이다.

정종락(鄭鍾洛)의 경우 방명록 내지의 재질이 다소 번지는 저가 한지인데다 빠르게 쓴 필체라 ‘정종운(鄭鍾運)’이나 ‘정종현(鄭鍾玄)’으로 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이 글씨를 성균관대 조민환·이영호·고연희 교수, 호서대 손태도 교수에게 보여주고 견해를 물었고 정종락으로 읽힌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상기 목록에는 우선 정종락으로 정리해 놓았다. 만일 그 글자가 정종운(鄭鍾運)이라면 은행인으로 동명인이 있는데 이 정종운은 1975년 한일은행의 미아동지점 수유동 간이예금취급소장 대리였고²⁵⁾ 1976년에는 한일은행의 광고지점 차장이었으며²⁶⁾ 계속 승진하여 1993년에는 한일은행의 감사부에서 근무했다.²⁷⁾ 정가 명창 정경태의 부친 정종운은 연령, 거주지와 판소리 감상회 장소의 거리, 국악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행보상 해당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종현으로는 1970년대 당시 활동한 적합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정치인 손도심 이름 옆에 정종락, 신영기가 나란히 줄 맞춰 서명한 것은 세 사람이 친분이 있어 같이 참석하여 작성했기에 그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영기의 인적 사항은 미상인데 손도심과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 다음은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인명별 주요 사항을 정리한 표로서 이를 통해 당시 감상회의 성격과 주축 인물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2023년 1월 10일 도서출판 고륜 측에서 증언한 내용: 홍종일, 『금운 한시집』, 도서출판 고륜, 2006, 저자 약력.

25) 「은행 인사」, 『매일경제』, 1975.5.24.

26) 「은행 인사」, 『매일경제』, 1976.8.3.

27) 「인사」, 『동아일보』, 1993.8.6.

〈표 1〉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인명별 주요 사항

순번	성명	출생 시기	직업	비고
1	강한영	1913년	판소리학자 · 교수	서울대 졸업
2	권오돈	1901년	한학자 · 교수	독립운동가
3	김석하	1923년	국문학자 · 교수	서울대 졸업
4	김연수	미상	미상	.
5	박조선	1931년	판소리 명창	단국대 졸업
6	손도심	1920년	정치인 · 고미술학자	서울대 졸업
7	신영기	미상	미상	.
8	양정분	미상	미상	.
9	이능우	1920년	국문학자 · 소설가 · 교수	서울대 졸업
10	이보형	1935년	국악학자	고음반 연구
11	이의철	1913년	심리학자 · 교수	서울대 졸업
12	이혜구	1909년	국악학자 · 교수	서울대 졸업
13	장건상	미상	문화재관리국 공무원	.
14	정병욱	1922년	국문학자 · 교수	서울대 졸업
15	정석해	1899년	철학자 · 교수	독립운동가
16	정종락	미상	거창 민대 지방부 강사	.
17	홍종일	1896년	철학자 · 한학자 · 시인	독립운동가

이 가운데 홍종일이 1896년 생으로 최고령자이고 이보형은 1935년 생으로 최연소자이다. 이 명단에서 가장 젊은 이보형이 이 행사를 주최한 소수정예 판소리학회의 중추적인 회원이 된 것은 다른 관계자들이 판소리의 국문학 사설 연구 전문가들이 반면 그는 판소리의 음악 부문에 관한 흔치 않은 연구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병욱도 「전통음악의 현대화 논의」(1981) 같은 국악 관련 글들도 더러 발표한 바 있으나,²⁸⁾ 판소리의 음악 부분은 이보형의 견해를 신뢰하고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과 일괄로 발견된 1976~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사설집 책자 18권 곳곳에 정병욱의 글씨로 여러 필기들이 있는데, 음악적인

28) 정병욱, 『백영 정병욱 저작 전집』, 신구문화사, 1997.

부분은 당시 공연장에서 해설을 맡았던 이보형의 말을 일부 받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1977년 성우향의 심청가 공연 해설을 이보형이 했고,²⁹⁾ 이 공연의 사설 책자에 필기된 정병욱의 메모 가운데 ‘평조’, ‘도습’, ‘설령제’, ‘변조’ 같은 음악 용어들이 있는데, ‘설령제’라는 표현은 학자 중에 특히 이보형이 덜령제를³⁰⁾ 지칭하여 평소 사용하는 용어라서³¹⁾ 정병욱이 이보형의 해설을 듣고 해당 사설 책자에 필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소리는 국내외 여타 장르의 연희물과 달리 귀명창 관중도 공연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추임새 등을 통해 연희 현장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누가 어떤 판소리 공연의 객석에 앉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명단을 보면 1920~1923년에 출생한 참석자가 많고, 제2회 판소리 감상회의 공연 출연자 박봉술은 1922년 생으로 정병욱과 동갑이다. 그리고 학자, 교수, 서울대 출신, 독립운동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병욱 등 1920~1923년에 출생한 서울대 학과 교수들이 이 감상회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명록의 일부 인사들은 연희전문, 연세대와 관련이 있다. 정석해는 연희전문 17학번·연세대 교수, 권오돈은 연희전문 25학번·연세대 교수, 정병욱은 연희전문 40학번으로 연세대 교수를 한 바 있으며 이보형은 연세대 나운영 교수에게 음악 이론을 공부한 바 있다. 강한영과 정병욱은 1952년 국어국문학 창간을 위한 제1회 모임 등을 통해 이미 인연이 깊었고, 이능우와 정병욱은 각각 1954~1955년에 국어국문학회의 대표 이사와 이사였다.³²⁾

29) 최지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음악사적 의의-음악학자 이보형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8, 한국음악사학회, 2017, 296면.

30) 덜령제: 설령제, 드령조, 권마성제라고도 한다. 이는 벼슬아치들이 행차할 때 하졸들이 길게 빼어 부르던 권마성(勸馬聲)을 응용하여 판소리에 도입한 창법이다. 이는 권삼득이 창시했다고 하는데 박진감 넘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판소리에서 군로 사령, 뱃사람, 사냥꾼 등이 호기있고 크게 외치며 거드럭거리는 장면에 쓰인다. 예를 들면 춘향이 가운데 군로 사령들이 춘향을 잡으려 가면서 크게 외치고 호들갑을 떠는 대목, 심청가 중 남경장사 선인들이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니며 외치는 부분,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사냥꾼들과 함께 제비를 잡으러 가는 대목 등이 덜령제로 불린다(노재명,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 참모습』,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 350면).

31) 이보형, 「판소리 권삼득 설령제」, 『석주선 선생 회갑 기념 민속학 논총』, 통문관, 1971.

32) 국어국문학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korlanlit.or.kr>)의 연혁과 역대 임원.

이상 살피본 바와 같이 서울대, 연세대, 국어국문학회 등을 아우르며 공히 깊게 관련된 인물은 정병욱이고, 이 방명록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부분 정병욱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그의 초대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제1회 감상회 참석자들이 제2회 감상회 방명록에선 대부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들이 전공인 국문학 등과 판소리가 관련은 있으나 거의 정병욱과의 친분으로 이 행사에 한번 참석한 분위기를 풍긴다.

2) 특징과 가치

1973년 판소리 감상회와 해당 방명록의 특징은 서명한 참석자들의 면모로 봐서 이 공연이 판소리 음악뿐 아니라 국문학, 철학 등 인접 학문도 염두에 두고 개최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판소리와 관련된 여러 학문들과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정병욱과 친분이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감상회가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지 및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노력도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판소리 감상회 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은 점, 해당 방명록에 특정 직업인 소수가 서명한 점으로 봐서 전체 관람객 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방명록에 서명한 사람 외에도 실제 관람객들은 더 있었을 것인데, 판소리 공연 방명록에 익숙치 않은 관람객이 서명하는 곳을 관심있게 보지 못하고 지나쳤거나 저명인사들의 친필을 보고 쑥스러워서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혹은 서명자 이외에는 실제로 관람객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감상회 당시 많이 활동한 판소리 전문 학자 박현봉, 유기룡, 박항, 김동욱이 해당 방명록에 없는 점이 이상한데, 학문적 이념 차이로 정병욱을 비롯한 주최측과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 감상회가 열린 1970년대 초반은 판소리 완창 공연 유행과 더불어 판소리보존연구회(1970년 창립), 판소리학회(1973년 창립) 결성 등 판소리 연구 붐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였는데 이에 따라 관련 학자들의 수와 열의가 증가하면서 판소리에 대한 학자들간의 가치관과 연구 방향 차이, 협력과 경쟁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송방송의 『증보 한국음악통사』에는 판소리학회가 1974년 창립된 것으로³³⁾ 기록되어 있으나 정병욱의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의 출간에 부쳐」에는 1973년에

33)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772면.

이미 판소리학회가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⁴⁾ 두 기록을 참고하면 판소리학회는 1973년 창립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의 판소리 감상회는 그 학회의 창립 직후 개최된 행사인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판소리 공연에서는 관객들에게 방명록에 사인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 1973년 방명록은 지금까지 확인된 판소리 공연 방명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해당 판소리 감상회의 동영상, 녹음, 사진이 아직 발견된 바 없는 상황인데³⁵⁾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사진기가 드물었던 당시 이 방명록은 행사 현장성을 집약해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물인 셈이다. 고전문학, 판소리, 가면극 등 여러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정병욱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실증자료이기도 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방명록을 통해 1973년 제1~2회 판소리 감상회의 날짜와 장소가 밝혀졌고 어떤 학자가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으며 어떤 애호가가 공연을 감상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명록은 근현대 판소리 공연의 큰 획을 그었던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모태가 된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 관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기록 자료 원본으로서 본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Ⅲ. 1973년 판소리 감상회 개요

1. 공연 개최 의도

정병욱은 1973년 판소리 감상회 개최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이 나라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에 드는 판소리가 빛이 바래고 현대인의 귓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판소리학회가 판소리 감상회를 열기 시작한 것은 1973년.³⁶⁾

34) 정병욱,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앞의 1982 책, 3면.

35) 1970년대 국악 공연 현장을 찾아가 기록용으로 녹음을 많이 한 이보형, 심우성, 이해식 등의 소장품에도 1973년 판소리 감상회 실황 녹음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글이 실린 『판소리 다섯 마당』(1982)에 ‘판소리학회(정병욱·강한영·이보형)’ 기록이 있고, 이 판소리학회가 1973년 판소리 감상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학회는 1984년에 결성된 판소리학회(창립회원:23명. 초대회장:강한영)와 다르다. 1973년의 판소리학회는 1982년 정병욱의 타계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

1966년 11월 1일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정병욱, 강한영, 김학주, 김우탁, 이능우, 이두현 등이 참여하여 판소리의 장르에 관한 동양학 심포지움이 열린 것은³⁷⁾ 당시 판소리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정병욱은 1973년 7월 16~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동양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 동양학자대회’에 참가하여 「한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을 발표했는데,³⁸⁾ 이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판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됐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판소리를 연구한 이병기, 조운제가 제자 정병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병욱은 그러한 경험 등이 쌓여 1973년 판소리학회 창립과 판소리 감상회를 주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공연 시기·장소·출연자

본고의 ‘Ⅱ.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분석’에서 연구하여 밝힌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시기, 장소, 출연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1973년 판소리 감상회 시기·장소·출연자

순번	공연 시기	공연 장소	출연자	주최
1회	1973년 4월 4일	기독교회관 소강당	판소리 명창·고수 미상	판소리학회
2회	1973년 5월 12일	기독교회관 대강당	명창 박목주·박봉술 고수:미상	판소리학회
3회	1973년 가을	기독교방송국 연주실	판소리 명창·고수 미상	판소리학회

36) 정병욱,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앞의 1982 책, 3면.

37) 「판소리는 소설이냐? 희곡이냐?」, 『경향신문』, 1966.11.7.

38) 「파리서 열리는 세계동양학자대회」, 『경향신문』, 1973.6.23.

이 기록 가운데 기독교회관, 기독교방송국은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데 기독교방송국이 지금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에 위치하고 있으나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당시에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건물에 있었다. 이 기독교회관은 1968년에 시공되었고 군사정권시대 민주화운동의 성지였으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간은 1970년대 당시 의식있고 문화를 선도한 지식인들이 애용한 곳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판소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감상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 기독교회관에서 판소리 감상회가 개최되었다고 하겠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에 출연한 명창 이름만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이 명창들의 인적 사항을 인명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박록주(朴綠珠): 1905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남. 1916년 박기흥에게 단가 <대관강산>, 춘향가, 심청가 일부를 배웠고 1918년 김창환과 김봉이에게 단가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강창호에게 심청가와 수궁가 일부를 익힘. 1919년에는 김점룡, 임준옥, 조진영에게 남도민요 <육자백이>와 <화초사거리>를 배웠고 1922년 송만갑에게 단가 <진국명산>과 춘향가 중 <사랑가>부터 <십장가>까지 사사함. 1929년에는 김정문에게 흥보가 초입부터 <제비 후리러 나가는 데>까지 배웠으며, 1930년에 다시 김정문을 찾아가 심청가 전바탕을 배움.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송만갑에게 틈틈히 소리를 배웠고 정정렬에게 단가 <적벽부>, 춘향가, 숙영낭자전을 배웠으며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공부함.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 공연에서 주연을 맡는 등 수많은 공연 활동을 했고 방송도 활발하게 했으며 기계식 녹음의 유성기음반(SP)부터 스테레오 장시간음반(LP)에 이르기까지 약 50여년 동안 많은 녹음을 남김. 5명창이 타계한 후 여성 국창으로 평가 받았고 1964년 판소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맨처음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았으며 당대 대명창으로 판소리 전승과 보존을 이끌다가 1979년에 세상을 떠남.³⁹⁾

39) 노재명, 『‘판소리 명창 박록주 흥보가’ 음반 해설서』, 지구레코드, JCDS-0435~0436, 2CD, 1994; 노재명, 『‘박록주 판소리’ 음반 해설서』, 엘지미디어/LG소프트, LGM-AK008, 2CD, 1996; 노재명, 『판소리 음반 걸작선』, 삼호출판사, 1997; 노재명, 『동편제 심청가 흔적을 찾아서』, 태림스코어, 2021.

- 박봉술(朴奉述):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나 부친 박만조, 형 박봉채, 그리고 송만갑 등에게 소리를 배움. 고향의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으로 간직한 마지막 대가로 평가받음. 비록 목이 상해서 고음을 지르지 못하여 대중적으로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으나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소리왕으로 불리며 인정받음. 1960년대 초반에 자신의 첫 녹음집이자, 창극을 제외한 순수 판소리 독창으로는 광복 이후 남자 명창 중에 최초로 음반을 냈음. 박봉술은 198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병석에 누워 지내다가 1989년 세상을 떠남.⁴⁰⁾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간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고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의 박봉술 출연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에 출연한 박록주, 박봉술 모두 동편제 명창으로서 각각 여성 국창, 남성 국창을 대표해 선정되어 무대에 서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고수 김명환은 박봉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소리 허는 놈들이 옛날 선생님 어찌고 저찌고 허는디 송만갑 선생 얼굴 보도 못하고 소리 한번 들어보도 못하고 허는 소리요. 박봉술이는 그래도 송만갑, 이동백얼 보고 소리도 들어보았고 송만갑한테 몇 번 배웠지요. 박봉술이가 목은 곳어도 제일 낮게 합니다, 제일 대가여. 제대로 배운 사람은 박봉술이여. 그것 땀에 상대허제.

궁계 박봉술이가 옛날 선생님한테 배운 그 식으로 허면 소리 들을 줄 아는 지식인들은 대번에 벌떡 일어설 것이요. 박봉술 소리도 처음에 서울 와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었는디 나하고 박록주씨하고 ‘느그들 들어봐라’ 하고 자꾸 설득할 시켰어요. 내 밑에서 명창이 몇이 났어. 흥보전, 수궁가, 적벽가 모도 박

40) 노재명, 『판소리 음반 걸작선』, 삼호출판사, 1997; 노재명,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 2007년 2월 4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06 순천문화인물 국창 박봉술 현장사업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판소리의 계승발전과 국창 박봉술 재조명』, 순천시/유네스코 무형유산판소리진흥회, 2007, 27~77면; 노재명, 『동편제 심청가 흔적을 찾아서』, 태림스코어, 2021.

봉술이가 제일입니다. 레코드 있으면 가사 내용얼 읽으면서 소리가 어찌고 된
가 들어보시오. 상현이는 수궁가, 적벽가는 봉술이한테 배워야 하느디41)

1973년 판소리 감상회를 개최한 판소리학회의 회원이자 김명환의 고법 제자인 이보형이 김명환의 이러한 고전을 많이 참고하고 수용하여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출연자 선정시 적극 반영해 건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3년의 제1회, 제3회 판소리 감상회 중에 박동진이 공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주최한 판소리학회가 그 다음해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 브리태니커회사와 공동 주최한 판소리 감상회의 제1회 공연자가 박동진이고 그 당시 박동진이 완창 판소리의 대명사처럼 인정받고 있었기에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서 도 우선 섭외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우향도 1973년의 제1회, 제3회 판소리 감상회 중에 공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판소리학회가 그 이후 1974~1978년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공동 주최한 판소리 감상회 시리즈의 최다 출연 명창이 성우향이고(총 14회 공연), 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 기념 공연’ 안내 인쇄물에 나열된 역대 출연자 명단을 보면 나이, 이름의 가나다순 상관 없이 성우향이 상당히 앞쪽에 명시되어 주최측이 중요 인물로 여긴 듯 보이기 때문이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 기념 공연’ 인쇄물의 역대 출연 명창은 박록주·정광수·박동진·성우향·정권진·조상현·박초선·박초월·김소희·오정숙·남해성·한승호·한농선·박송이(박송희)·박봉술·성창순·안향련·김영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판소리 인간문화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김연수 명창은 1974년 3월 9일 간암으로 타계하였고 그 직전인 1974년 1월 18일부터 열린 판소리 감상회 시리즈에 건강상 출연 섭외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우향의 심청가 공연시 이보형이 해설을 맡았고, 그 뒤 강한영이 국립창극단 단장으로 있을 때 성우향을 판소리 명사범으로 특별히 초빙하여 다년간 국립창극단 단원들에게 판소리를 강의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⁴²⁾ 이보형이 판소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명고수 김명환은 다음

41) 김명환 구술,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뿌리깊은나무, 1991, 108면.

42) 노재명, 『판소리 명창 성우향』, 성우향 홍보가 CD음반 부록 서적, 지구레코드 JCDS-0697~0698, 2CD, 1998; 노재명, 『국보 인간문화재 성우향 판소리 인생 80년사-판소리에 팔린 판례(소녀 판례가 판소리 명창 성우향이 되기까지)』, 국악음반박물관, 2011.

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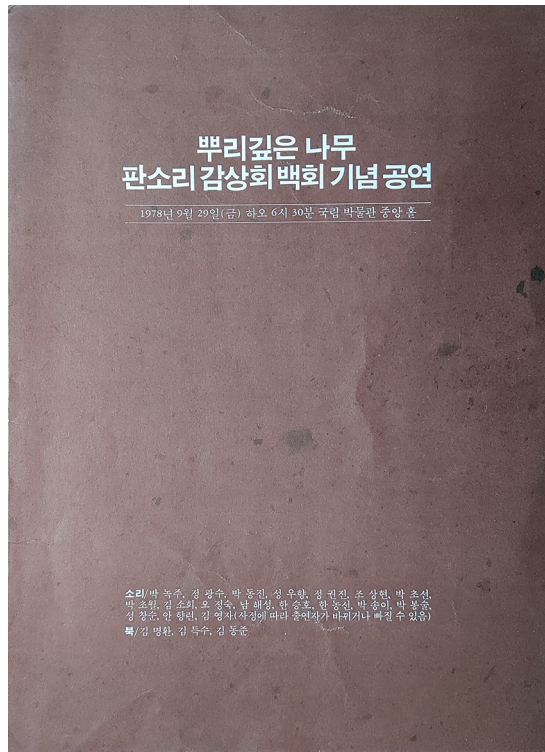
보성소리 공부는 거그서(정응민 문화에서) 성우향이 제일 많이 했지요. 조상현이는 그때 어렸으니까 어린 소리릴 갈치고, 자기가 현 소리는 또 따로 있어요. 조상현이한테는 적당한 수준으로 갈치고, 우향이는 말하자면 대학원 소리 잘했소. 좌우간 하루 소리 적게 하는 날이 아홉 시간, 글 안하면 열두 시간, 닭이 울드락 했어.⁴³⁾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방명록에 서명한 대다수는 학자, 애호가로 파악되며 명창은 박초선이 유일한데 박초선은 제1회 출연자로서 방명록에 서명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1회 판소리 감상회의 공연자에 대한 공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박초선이 평소 표명한 주요 공연 약력에서는 1970년 국립극장 제1회 박초선 판소리 발표회(홍보가)와 1975년 명동예술극장 제2회 박초선 판소리 발표회(춘향가) 공연만 언급되고, 국악계 역사상 중요한 1973년 판소리 감상회 출연은 언급된 바 없으므로 1973년 제1회 감상회는 출연자가 아닌 관람자로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병욱과 박초선은 친밀한 사이였고 해당 방명록에 두 사람의 친필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봐서 함께 이 행사장에 참석하고 행사장 내에서도 같이 한쌍으로 움직였을 수 있다. 1970년 제1회 박초선 판소리 발표회(홍보가) 안내 인쇄물을 보면 박현봉·성경린·임동권·김종철의 축사가 실려있고 정병욱의 축사는 없는 것으로 봐서⁴⁴⁾ 정병욱과 박초선이 가깝게 지낸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생각된다. 박초선의 은사 명창이 1973년 제1회 판소리 감상회에 출연해서 제자인 박초선이 참석하여 해당 방명록에 사인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박초선의 여러 스승들 중에 그 당시 서울에서 활동한 유력 출연자는 김여란, 김소희이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방명록에 박초선 외에는 다른 명창들 이름이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의 출연 명창이 박록주와 박봉술이므로 제1회와 제3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가 출연했으리라 보여지고 제2회 감상회의 사례로 견주어 보면 매회 명창 2명씩 공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김명환 구술, 앞의 1991 책, 35면.

44) 국악음반박물관, 「제1회 박초선 판소리 발표회 홍보가 공연 안내 인쇄물」, 『판소리 명창 제6호-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채륜, 2016, 290면.



〈자료 4〉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8년 9월 29일 국립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 기념 공연’ 안내 인쇄물.

소리: 박록주 · 정광수 · 박동진 · 성우향 · 정권진 · 조상현 · 박초선 · 박초월 · 김소희 · 오정숙 · 남해성 · 한승호 · 한농선 · 박송이(박송희) · 박봉술 · 성창순 · 안향련 · 김영자, 교수:김명환 · 김득수 · 김동준.

김명환(1913~1989)은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북은 내가 많이 쳤어. 그때 내가 예순두살인가 세살 되었을 것이여”라는 증언을 한 바 있다.⁴⁵⁾ 이보형이 수집한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판소리학회 주최 판소리 감상회의 출연 명단을 보면 1974년 4월 26일부터 1978년 3월 24일까지 김명환은 38회 이상 고수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창, 명고수를 통틀어 최다 출연자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그 직전인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서도 김명환이 고수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환이

45) 김명환 구술, 앞의 1991 책, 38면.

당시 많이 출연한 것은 그에게 판소리 고법을 사사하고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이보형의 주선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역사적 의의

1973~1978년 판소리 감상회에 대해 그간 학계에선 추측과 없던 사실까지 가미되어 다음과 같이 잘못 기록되기도 하였다.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1973년 가을부터 1978년 10월까지 백희가 공연된 판소리 완창 공연회로 초기에는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라 하였으나 월간 잡지 뿌리깊은나무가 창간된 뒤로 그 이름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로 바뀌었음.⁴⁶⁾

이러한 오류 기록은 이번에 본고에서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정병옥이 중심이 되어 판소리학회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것이고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는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나누어 평가 기록해야 한다.

1973년 제1회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에는 총 14명의 서명이 있고 제2회 방명록에는 총 5명의 서명이 있는데 감상회 횟수가 지나며 관람객이 감소한 흔적이 보인다. 정병옥은 당시 판소리 감상회의 관람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처음 판소리 감상회가 열렸던 1973년에는 청중이래야 일찍이 판소리를 즐겨 듣던 노년층 몇 명과 공연자들의 식구 및 친지들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렵의 공연자들에게는 그들의 기능을 발표할 수 있는 그만한 공연장도 다른 데에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⁴⁷⁾

1973년 제3회 판소리 감상회의 방명록과 관련 기록은 발견된 바 없어 상세한 내막

46) 김명환 구술, 앞의 1991 책, 39면, 편집자 주석 설명 글.

47) 정병옥,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앞의 1982 책, 3면.

은 파악이 어려우나 이 감상회 시리즈가 제3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관람객 수가 저조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추진이 불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판소리학회가 한국브리태니커회사(대표이사: 한창기)를 설득하여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정병옥은 당시 한글 전용 사용 문제로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백과사전 제작진, 한창기(1936~1997) 대표이사를 만나고 있었다.⁴⁸⁾ 이때 이보형이 한창기에게 판소리의 중요성을 적극 호소하여 판소리 감상회 개최와 그 뒤 1982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 음반 발행 등을 이끌어냈다.⁴⁹⁾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1974년부터 주최한 판소리 감상회의 이름은 1976년 4월에 월간지 『뿌리깊은나무』가 발간됨에 따라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가 되었다. 1976~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때는 해당 공연의 사설 책자도 제작하여 배포됐고 그 이전 판소리 감상회의 경우는 그러한 사설집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재정상 그 이전에는 사설집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뿌리깊은나무』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책자 제작이 용이해진 듯하다. 이 사설책들은 명창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고 출판계가 열악했던 1976~1978년 당시 제작되어 군데군데 일부 제조 오류가 보이지만 당시 학자들에겐 더 없이 소중한 자료 구실을 하였다.



〈자료 5〉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6~1978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사설책 20권

1968년 9월 30일 국립국악원 연주실에서 박동진이 판소리 홍보가를 5시간 완창 공연하여 큰 화제가 되었고⁵⁰⁾ 대중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며 이후 판소리 완창 붐을

48) 손태도, 「판소리의 예술성에 대한 확신 속에 이뤄진 100회의 판소리 행사」, 앞의 2018 책, 13쪽.

49) 이보형이 평소 필자에게 자주 언급한 내용.

일으켰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도 그 영향을 일부 받아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기관의 주최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개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대중성을 표방하면서도 그 예술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강하다. 이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이후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 그리고 1984년부터 시작된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시리즈 등 국립 기관과 민간 차원의 판소리 공연 기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73년 판소리학회가 개최한 판소리 감상회는 그 뒤 1974~1978년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판소리 감상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학계와 재계가 판소리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한 국악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를 보여주었다.⁵¹⁾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의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1982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 음반도 발행되었고,⁵²⁾ 이는 전세계의 주요 도서관 등에 국악 열람 자료로 구비되어 판소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⁵³⁾

IV. 결론

본고에서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을 당시 성경린이 기록한 문헌과의 비교 검증, 방명록에 서명한 이들의 또다른 필적과의 대조를 통해 진본임을 입증하였다.

1973년 제1회 판소리 감상회의 방명록에 총 14명, 제2회 방명록에 총 5명이 서명하였는데 제1~2회 감상회에 모두 참석한 이는 정병욱과 이의철이고, 방명록에 기록

50) 「사라져가는 아쉬움 속에 장장 다섯시간 부를 판소리」, 『조선일보』, 1968.9.29.

51) 2009년 11월 6·13일 광주 MBC-TV 다큐멘터리 ‘뿌리깊은나무 한창기’ 방송. 노재명 인터뷰 내용.

52)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단가(박봉술·정권진·한애순·조상현) 춘향가(조상현) 심청가(한애순) 적벽가(정권진) 수궁가(박봉술) 흥보가(박봉술)’ 전집 23LP 박스물 음반(북:김명환),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국·영문 해설서(글:정병욱·이보형) 내장. 이 전집의 취입자 선정시 이보형, 김명환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음.

53) 2012년 8월 26일 국악FM방송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진행: 노재명)에 조상현 명창이 출연하여 언급한 내용.

된 참석자 17명의 인적 사항을 본고에서 밝혔다. 이 명단을 분석하면 1920~1923년에 출생한 참석자가 많고 학자, 교수, 서울대 출신, 독립운동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병욱 등 1920~1923년에 출생한 서울대 학파 교수들이 이 감상회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사들은 연희전문, 연세대와 관련이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국어국문학회를 아우르며 공히 깊게 관련된 인물은 정병욱이고, 이 방명록의 인물들은 대부분 정병욱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그의 초대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 행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담당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973년 판소리 감상회를 주도한 이들의 담당 내용

순번	성명	감상회의 담당 내용	직업	주최측 직책
1	정병욱	감상회 총기획 국문학 의견	국문학자 · 교수	판소리학회 회장
2	이보형	감상회 출연자 섭외 국악학 의견	국악학자 · 고음반 연구	판소리학회 회원
3	강한영	감상회 개최 참여 국문학 의견	국문학자 · 교수	판소리학회 회원

그간 학계에서는 해당 판소리 감상회가 1973년 가을 기독교방송국 연주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본고에서 이 감상회의 방명록을 연구하고 성경린의 관련 기록을 찾아내 이 행사가 1973년 4월 4일 기독교방송국 소강당, 5월 12일 기독교방송국 대강당, 가을에 기독교방송국 연주실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1973년 제2회 판소리 감상회의 출연 명창이 박록주와 박봉술이므로 제1회와 제3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가 출연했으리라 보여지고 제2회 감상회의 사례로 견주어 보면 매회 명창 2명씩 공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와 해당 방명록의 특징은 서명한 참석자들의 면모로 봐서 이 공연이 판소리의 음악학뿐 아니라 국문학, 철학 등 인접 학문도 염두에 두고 개최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판소리와 관련된 여러 학문들과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정병욱과 친분이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감상회가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지 및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노력도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1973년 방명록은 지금까지 확인된 판소리 공연 방명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해당 판소리 감상회의 안내 인쇄물, 동영상, 녹음, 사진, 언론 보도 내용이 아직 발견된 바 없는 상황인데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사진기가 드물었던 당시 이 방명록은 행사 현장성을 집약해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물인 셈이다. 고전문학, 판소리, 가면극 등 여러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정병욱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실증자료이기도 하다. 이 방명록은 근현대 판소리 공연의 큰 획을 그었던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모태가 된 1973년 판소리 감상회에 관해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기록 자료 원본으로서 본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정병욱이 중심이 되어 판소리학회가 자체적으로 개최하였고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는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제3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관람객 수가 저조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추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판소리학회가 한국브리태니커회사를 설득하여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1968년 국립국악원에서 박동진이 판소리 홍보가를 5시간 완창 공연하여 큰 화제가 되었고 대중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며 이후 판소리 완창 붐을 일으켰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도 그 영향을 일부 받아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기관의 주최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개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대중성을 표방하면서도 그 예술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강하다. 즉, 판소리가 단순히 흥행 목적의 연희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음악·문학·연극·철학·역사 등이 어우러진 고차원의 종합예술이라는 자각에서 각계 지식인들이 운집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는 이후 1974~1978년 판소리 감상회, 그리고 1984년부터 시작된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시리즈 등 국립 기관과 민간 차원의 판소리 공연 기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3년 판소리 감상회의 맥을 이어 1974~1978년 한국브리태니커회사와 판소리학회가 주최한 판소리 감상회는 학계와 재계가 판소리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한 국악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1982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전집 음반도 발행되었고, 이는 전세계의 주요 도서관 등에 국악 열람 자료로 구비되어 판소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의 영인을 이 뒤 부록에 실어 학계에 최초로 공개하는데 방명록에 서명을 남긴 학자, 독립운동가, 정치인, 공무원 등의 그간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 구실을 할 것이다.

투고일: 2023.01.16

심사일: 2023.02.27

게재확정일: 2023.03.14

참고문헌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1년 서울대 민속가면극연구회 창립 봉산탈춤 공연 방명록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토기는 신라 때 것」(서울세관 압수골동품 감정), 『조선일보』, 1966.3.19.
「판소리는 소설이냐? 희곡이냐?」, 『경향신문』, 1966.11.7.
「사라져가는 아쉬움 속에 장장 다섯시간 부를 판소리」, 『조선일보』, 1968.9.29.
「문공부 인사」, 『매일경제』, 1969.12.22.
「인사」, 『조선일보』, 1973.3.30.
「파리서 열리는 세계동양학자대회」, 『경향신문』, 1973.6.23.
「은행 인사」, 『매일경제』, 1975.5.24.
「숨은 청백리 94명 수상」, 『동아일보』, 1976.6.9.
「은행 인사」, 『매일경제』, 1976.8.3.
「정병욱 박사 별세」, 『매일경제』, 1982.10.13.
「전 연세대 교수 권오돈 씨」(부고), 『동아일보』, 1984.2.11.
이상만, 「나의 스승-이해구 선생님」, 『경향신문』, 1984.2.13.
「인사」, 『동아일보』, 1993.8.6.
「학술원 회원 이의철 박사」(부고), 『동아일보』, 1995.5.1.
「전 연세대 교수 정석해 씨」(부고), 『조선일보』, 1996.8.15.
「전 숙대 이사장 정석해 박사」(부고), 『동아일보』, 1996.8.15.
「학술원 회원 이능우 교수 별세」, 『한국일보』, 2006.8.29.
「강한영 부고」, 『경향신문』, 2009.4.6.
「국악계 거목 이해구옹 별세」, 『국민일보』, 2010.2.1.
「김석하 부고」, 『경향신문』, 2011.10.14.

노재명, 『‘판소리 명창 박록주 흥보가’ 음반 해설서』, 지구레코드, JCDS-0435~0436, 2CD, 1994
_____, 『‘박록주 판소리’ 음반 해설서』, 엘지미디어/LG소프트, LGM-AK008, 2CD, 1996
_____, 「움직이는 한국 음악 대사전 이보형 선생님」, 『제16회 방일영국악상 시상식-현정 이보형 수상 편』, 조선일보사, 2009년 11월 17일, 52~53쪽
2009년 11월 6·13일 광주 MBC-TV 다큐멘터리 ‘뿌리깊은나무 한창기’ 방송
2012년 8월 26일 국악FM방송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진행:노재명) 조상현 출연 방송

‘뿌리깊은나무 판소리-단가(박봉술·정권진·한애순·조상현) 춘향가(조상현) 심청가(한애순)
적벽가(정권진) 수궁가(박봉술) 흥보가(박봉술)’ 전집 23LP 박스물 음반(북:김명환),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국·영문 해설서(글:정병욱·이보형) 내장

국악음반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earkorea.com>)

국어국문학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korlanlit.or.kr>)

장선화, 「거창 민대 지방부」, 『디지털거창문화대전』 해설 글(<http://geochang.grandculture.net/geochang/toc/GC06300157>)

강한영, 『판소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악음반박물관, 『판소리 명창 제5호-적벽가 명창, 활 쏘고 불 지르다』, 채륜, 2015

_____, 『판소리 명창 제6호-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채륜, 2016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회 삼십년사』, 일조각, 1983

김명환 구술,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뿌리깊은나무, 1991

노재명, 『판소리 음반 걸작선』, 삼호출판사, 1997

_____, 『판소리 명창 성우향』, 성우향 흥보가 CD음반 부록 서적, 지구레코드 JCDS-0697~
0698, 2CD, 1998

_____, 『판소리 음반 사전』, 이즈뮤직, 2000

_____, 『고음반의 국악인 약력 집성』, 국악음반박물관, 2006

_____,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본 판소리 참모습』, 나라음악큰잔치 추진위원회, 2006

_____, 『국보 인간문화재 성우향 판소리 인생 80년사-판소리에 팔린 판례(소녀 판례가 판소리
명창 성우향이 되기까지)』, 국악음반박물관, 2011

_____, 『중고제 판소리 흔적을 찾아서』, 채륜, 2012

_____, 『판소리 명창 이옥천』, 채륜, 2014

_____, 『꽃피는 중고제 판소리』, 채륜, 2016

_____, 『조선성악연구회 발자취를 따라서』, 채륜, 2017

_____, 『동편제 심청가 흔적을 찾아서』, 태림스코어, 2021

노재명·김기형·김혜정, 『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 국립민속국악원, 2002

노재명·송방송·유영대·김현선·김인숙·성기련·김혜정·임혜정·이진원·전지영·성기
숙, 『한국민속음악학의 개척자 이보형의 학문세계』, 연낙재, 2019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기획·집필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백회의 기록』(김여란·
정권진·박동진·성우향·오정숙·박봉술·박초선·조상현 판소리 녹음 수록 CDPARK-
18-092-093, 2CD, 녹음 제공:이보형), 국립중앙도서관, 2018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1

_____, 『백영 정병욱 저작 전집』, 신구문화사, 1997

한국국회인물사편찬회, 「손도심(孫道心)」, 『역대국회의원총람』, 조세공문사, 1983

홍종일, 『금운 한시집』, 도서출판 고륜, 2006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1988

『판소리 다섯 마당』,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995

『한국예술지』 9, 대한민국예술원, 1974

노재명,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 2007년 2월 4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06 순천문화인물 국창 박봉술 현장사업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집 『판소리의 계승발전과 국창 박봉술 재조명』, 순천시/유네스코무형유산판소리진흥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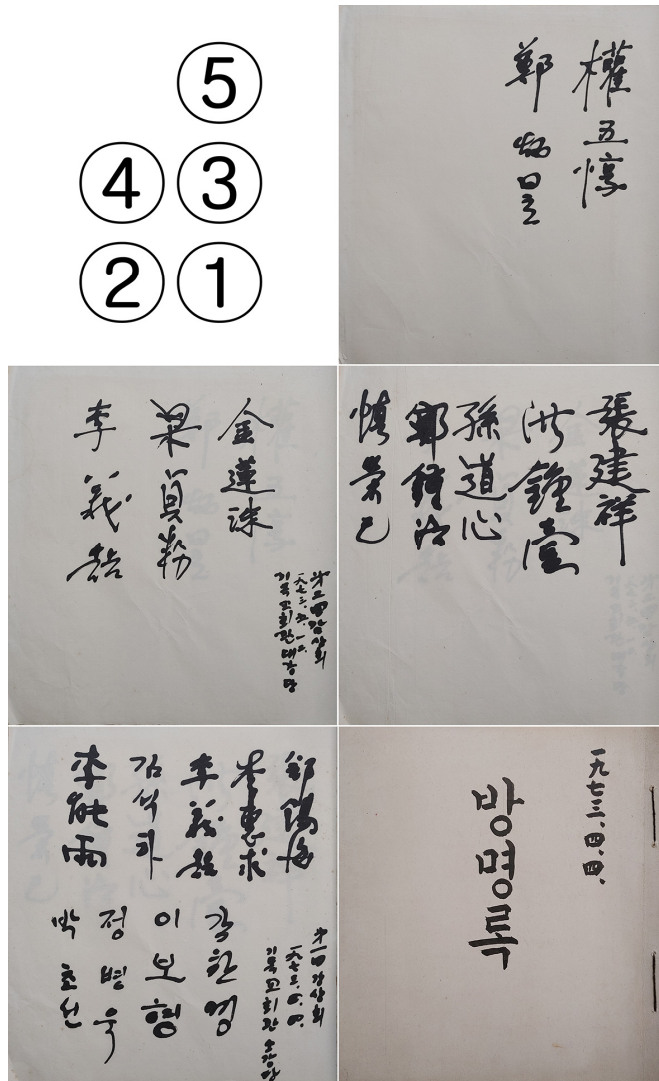
_____, 「화순의 음악 문화와 예인-현지조사와 실증자료 중심 연구」, 『제11회 국립남도국악원 학술회의-남도 굿, 삼현육각과 예인을 만나다』, 국립남도국악원, 2014.6.28.~29

이보형, 「판소리 권삼득 설령제」, 『석주선 선생 회갑 기념 민속학 논총』, 통문관, 1971

최지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의 음악사적 의의-음악학자 이보형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8, 한국음악사학회, 2017

[부록] 1973년 판소리 감상회 방명록 영인

※ 본 방명록은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자료이며 지면의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방식의 기록물이기에 그렇게 읽도록 영인하므로 현행 서적의 읽기 반대 방향으로 보아야 함.



A Study on the Guestbook for Pansori Appreciation in 1973

Ro, Jae-myeong

This paper is the first one to study the guest book of th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in 1973, which is owned by the Korean Classical Music Record Museum, and the data is hereby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This material is the oldest among the guestbooks for pansori performances that have been confirmed so far. Th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in 1973 was an important event that became the basis of the Deep-rooted Tre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which marked a major milestone in modern and contemporary pansori performances and this guestbook is the only original record of the event that has been confirmed so far, as no videos, recordings, or photos of the meeting have been found yet.

Analyzing a total of 17 people with personal handwriting in this guestbook, many attendees were born between 1920 and 1923, and many included scholars, professors, graduat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dependence activists. Especially it seems that the professo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d this appreciation meeting. Some of the figures are related to Yeonhee College and Yonsei University, but the person who is deeply rela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is Byungwook Jung and most of the people in this guestbook are close friends with him and seem to have attended by his invitation.

In the academic world, it has been erroneously known that the pansori appreciation event was held in the fall of 1973 at the Christian Broadcasting Station concert hall. In this paper, however, we studied the guest book of this appreciation meeting and found related records by Kyunglin Sung, revealing that this event was held in the small auditorium of Christian Broadcasting Station on April 4, 1973, in the auditorium of the Station on May 12, an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tation in the fall. A list of famous singers was also partially prov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master singers who appeared in the 2nd Pansori Appreciation in 1973 were Rokju Park and Bongsul Park, it seems

that masters of a similar level appeared in the 1st and 3rd Pansori Appreciation and judging from the case of the 2nd appreciation meeting, it is thought that two master singers performed each t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73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and the corresponding guestbook are that, judging from the participants who signed the performance, there are traces of this performance being held with not only the musicology of Pansori, but also related studies such as Korean literature and philosophy in mind. Efforts are also made to solidify the connection with various studies related to pansori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pport and cooperation so that the meeting can continue to develop, centering on scholars who are friendly with Byungwook Jung. The guestbook of th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in 1973 is also a valuable resource in that it provides insight into aspects unknown to the academic world, such as scholars, independence activists,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who left their signatures.

In this pap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ignatories of the guest book, the performers, and the assigned tasks of those who led the viewing event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 to enhance understanding. In addition, by researching this guestbook, it was revealed that the appreciation meeting had a great influence on pansori performances and record planning at the national and private level, such as th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from 1974 to 1978 and the National Theater Pansori Series that began in 1984.

Through the above, although the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in 1973 played an important historical role, it becomes possible only now to know its main part that has been completely forgotten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in the academic world.

Key Words : Pansori, Appreciation Meeting, Guestbook, Master Singer, Byungwook Jung